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4. 11. 4.(월) ~ 11. 17.(일) <14일간>

3. 대상기관 : 40개 기관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33개)
○ 여성가족실	○ 여성가족실 소관(9)
○ 복지실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시민건강국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보건환경연구원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 어린이병원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 은평병원	
○ 서북병원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33개)
	<p>○ 복지실 소관(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 흥은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시립 양평 쉼터,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 광역자활센터,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p>○ 시민건강국 소관(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 서울시 제대혈은행, 에이즈 예방 홍보, 에이즈 예방 교육, 한센병관리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별첨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현황

연번	출석 일시	수감기관	출석 대상		요구 사유	출석여부
			성명	소속(현직)		
1	11.7(목) 14시	여성가족실	이경아	(강남드림빌 보육시설 관련) 사회복지법인 그린힐/(현)대표	대표이사 변경 과정 에서 위법사항이 있 었는지 확인	위원들이 증인 출석 취소 사전 합의
2	11.7(목) 14시	여성가족실	김정숙	(강남드림빌 보육시설 관련) 사회복지법인 그린힐/(전)대표		
3	11.7(목) 14시	여성가족실	이은영	강남드림빌보육시설 /(전) 시설장	시설장 변경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확인	
4	11.7(목) 14시	여성가족실	우영미	강남 드림빌/ (현)시설장		
5	11.7(목) 14시	여성가족실	이 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이사장	사회복지법인 운영 관련 진술	김명숙 이사 대리 출석
6	11.12.(화) 14시	복지실	심정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운영 관련 진술	출석
7	11.12.(화) 14시	복지실	최명학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이사장		
8	11.12.(화) 14시	복지실	이청자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전 5대 이사장		
9	11.12.(화) 14시	복지실	문동팔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상임이사	한국재활재단 운영 관련 진술	
10	11.12.(화) 14시	복지실	기민희	서대문구청/ (현) 주택과장 (전) 사회복지과장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국 민 의 힘	김 영 옥	수석전문위원 : 주병준 의사지원팀장 : 황동연 전 문 위 원 : 김소은
부위원장	국 민 의 힘	신 동 원	행 정 6 급 : 박현우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 금 란	행 정 7 급 : 나혜미 사무운영7급 : 심선영 행 정 9 급 : 조용민
위 원	국 민 의 힘	이 종 환	입법조사관 : 우현재
"	국 민 의 힘	신 복 자	입법조사관 : 이윤진
"	국 민 의 힘	강 석 주	입법조사관 : 도미화
"	국 민 의 힘	도 문 열	입법조사관 : 신현대
"	더불어민주당	김 인 제	입법조사관 : 한송희
"	더불어민주당	이 병 도	입법조사관 : 김종훈
			정책지원관 : 박서영
			정책지원관 : 양옥수
			정책지원관 : 백순정
			정책지원관 : 양희수
			정책지원관 : 권민진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5. 감사 시행 경과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4.(월) ~11.5.(화)	행정사무감사 준비		
11.6(수) 10:00	<여성가족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위원회 회의실	
11.7(목) 10:00	<여성가족 관련 기관> -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11.8(금) ~11.10(일)	감사결과 자료정리		
11.11(월) 10:00	<복지실> <서울시 복지재단>	위원회 회의실	
11.12(화) 10:00	<복지 관련 기관> -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 홍은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시립 양평 쉼터,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p>서울 광역자활센터,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서울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p>		
11.13(수)	감사결과 자료정리		
11.14(목) 11:00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15(금) 10:00	<특수 법인> - 서울의료원 <직영 병원>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위탁 병원> - 보라매병원 <건강 관련 기관> - 서울시 제대혈은행, 에이즈 예방 홍보, 에이즈 예방 교육, 한센병관리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위원회 회의실	
11.16(토) ~11.17(일)	감사결과 자료정리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요구 등
계	387	151	110	126
여성가족실	55	27	15	13
여성가족재단	33	11	8	14
여성가족 관련 기관 (증인 요구기관 포함)	56	19	16	21
복지실	68	30	20	18
복지재단	23	8	6	9
복지 관련 기관 (증인 요구기관 포함)	48	23	11	14
시민건강국	60	12	22	26
보건환경연구원	19	9	2	8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12	8	4	-
건강 관련 기관	13	4	6	3

여성가족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괄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44	57	39	48
여성가족실	55	27	15	13
여성가족재단	33	11	8	14
여성가족 관련 시설 (증인 요구기관 포함)	56	19	16	21

2 세 부 내 역

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여성가족실 -27건

1.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나, 인터넷 후기를 보면 부적절한 사용 및 운영 사례 확인됨. 현금성 지원인 만큼 관리·점검 철저히 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구직활동과 무관한 물품 구매, 강의 하나 듣고 두 개의 보고서 제출, 구직지원금 사용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개설한 '서울우먼업몰'에서 구직지원과 무관한 물품 판매 등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됨.
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2023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시설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예산 지원 안 되고 있음. 예산 지원 반드시 되도록 할 것.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시설)의 평균 입소율 64%에 불과한데 100억원 가량의 예산 투입되고, 이 중 70%가 인건비임. 입소율 저조한 원인 등을 분석하여 시설의 통합 또는 환경개선 등 재구조화 검토하고, 시설 입소자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 하는 재가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원가족 복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검토할 것.
4. 안심벨 사용을 위해서는 특정 운영체제(안드로이드 13 이상)가 필요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고가의 스마트폰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고가의 스마트폰이 필요한 현재 시스템이 1인 가구나 위험지역 거주자 보호라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아 보임. 사업대상에 따른 기기 사양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 조건에 대해 안내할 것.
5. 안심벨 배포 후 2주 내에 앱 연동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건수가 다수 있음. 배포 목표 달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관리 철저히 할 것.
6.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외에도 피해상담 창구를 다각화할 것.

7. KBS는 주 시청 연령대가 60대 이상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홍보매체로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므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책 홍보를 위해 정책 대상자 연령에 맞는 수단을 활용할 것.
8. 보호대상 아동의 환경을 고려한 적합한 아동 시설 배치가 필요한데, 현재는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9. 결혼식 지원 시 기업 협조를 통한 식사와 답례품 지원 등 여러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
10. 결혼식 장소 이용 시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 적극 검토할 것.
11. 주요업무 보고에 '서울키즈 오케이존' 관련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개소 관련 수치 없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12. 네이버에서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검색하면 스마트 서울맵이 뜬. 지역 선택 후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오케이존 가입 음식점이 나옴. 그런데, '서울형 키즈카페' 표시는 있으나 '서울키즈 오케이존' 마크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시 보완이 필요함.
13.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비예산으로 한화손해보험과 MOU를 맺었으며 현재 11개의 일반 음식점이 '안심보험'에 가입했으나 오케이존은 없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14. 공공예식장 관련 시행규칙 등의 근거 없이 대관료 무료 감면처리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시정할 것.
15. 용산구에서 직책보조비 부정수급과 기본재산 임의처분 관련 고발조치하고 시에 보고하였음에도 시는 개선명령과 조치사항이 없었음. 내부고발 사무국장 부당해고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고 원복 및 해고기간 내 받을 수 있는 임금 지급주문을 하여 공정력 있는 지방노동위 결정을 즉시 시행해야 하나 서울시에서 조치사항 없었음. 시정조치 바람.
16. 가족 결속력을 형성하기 위해 가족이야기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가족 단위 이동 접근성, 주차공간 등 적합하지 않은 건물을 활용하여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며 가족사진 등 프로그램 내용 또한 부적합하므로 검토 후 시정조치 필요.
17. 공공예식장 관련, 결혼식 후 식사 제공 방식이 같은 야외공간임에도 어떤 곳은 출장뷔페이고 어떤 곳은 도시락만 제공 가능하는 등 차이가 남. 신혼부부들이 공공예식장 결혼식의 만족도가 저조하므로 개선 바람.

18. 서울엄마아빠택시 만족도 조사 대상이 1,632명인데 대상이 적정한 건지 의문임. 만족도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의 지속 유무를 판단 해야 함. 지원금 10만원이 평균적으로 3개월 안에 모두 소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과연 효율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9. 여성가족실 소관 공무원의 외부강의시 “외출”과 ‘출장’을 분명히 할 것. 또한,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에만 허용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함.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강의가 아니라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를 실시하는 등 법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
20. (사)시니어라이프 라는 법인은 이미 ‘2021년도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서 2,500만원 전액을 교부 받았는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부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시됨. 보조금이 환수도 되지 않았는데 조치 결과를 【추진완료】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추진하는 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
21. 새로 개관하는 거점형키움센터와 현재 운영 중인 거점형키움센터 내에 전문적인 강사를 활용한 장애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길 바람.
22.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가 운영비와 임차료(보증금)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내일배움카드 등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 시 보조금 외의 몇 배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재정분석 없이 일괄적인 보조금 지원은 불합리함. 특히 서울시의 보조금 외의 수입에 관해서는 관리감독권한이 없으므로 각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전반 및 총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재정분석을 의뢰하여 보조금 지원체계 재검토를 조치할 것.
23. 서울시 휴대용 안심벨 사업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배포한 지키미 사업과 가장 큰 차이는 안심이 앱 연동이며, 긴급으로 계약발주를 한 이유도 앱 연동임에도 불구하고, 앱 연동율은 배포 2만건 중에 1만2천여건으로 연동율이 61%로 낮음. 2차 3만건 계약발주도 긴급으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전문성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4.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반택시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배차 실패율이 높고 영아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불만이 있는데, 특정 업체만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음. 임산부 교통비처럼 택시 바우처를 주어서 어떤 택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25. 외국인 가사관리사 10월 급여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차등지급 되고 있으며, 월 최저인건비급여에 비해 급여가 낮음. 공공서비스를 민간기관에서 대행하게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의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매뉴얼, 지침 등 부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요금이 비싸서 저소득층은 이용하기 어려움. 최초 6개월 시범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26. 안심마을보안관은 같은 부서내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예산 낭비되고 있어 사업 통폐합 등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함.
 -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이 구별 1개동으로 협소해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함께하는 활용 방안을 검토 요청함.
 - 안심마을보안관이 해마다 같은 지역만 순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편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이 필요함.
27. 공공예식장 관련 고급형, 실속형 등 비용이 저렴하지 않는데 협력업체 의무적 이용은 부담이 될 수 있음.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이용자들이 결혼식을 진행할 때 예약금 등을 걸어놓고 있는데 자본력이 약한 업체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음. 또한 업체 공고문을 일정기간 유지바람.

◆ 여성가족재단 - 11건

1.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연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단체도 있음. 컨설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연속해서 평가가 저조한 단체의 경우 보다 심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 유튜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동영상 조회수가 73회, 79회 등 상당히 저조한 것을 볼 때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홍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효성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동영상 제작하고 온라인 서포터즈 (120명)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것.

3. 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한 폭력 피해 심의 및 예방과 교육은 총 240회로 보고되었으나 이 중 30% 가량이 5~6명 소규모로 진행되었고, 강사료는 규모와 관계없이 1회당 15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등 실적을 늘리기 위한 형식적 교육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의례적 교육이 아닌 실제적으로 효과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운영할 것.
4.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사칭한 피싱문자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만으로 추가 피해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음. 디지털 성범죄 노출로 인한 공포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므로 홈페이지 보안 강화 등 철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5. 서울가족플라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025년까지임. 그동안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상당하고 건물 구조상 누수를 피하기 어려운 형태로 보여짐. 향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할 것으로 보여 건물하자 보수계획이 필요함.
- 6.. 여성가족재단 공간운영실 성과목표인 ‘안전사고 발생건수 0건’과 관련하여 출연기관 경영평가 안전 관리기준에만 부합하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또한 경영평가 안전 관리 기준 이외에는 내부적으로 안전사고 규정 기준 및 조치 규정이 없음. 대시민 시설 공간 운영에 있어 안전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시급한 시정조치가 요구됨. 또한 지표의 근거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안전사고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성과목표를 산정하는 등의 개선을 바람.
7. 여성가족재단은 향후 <주요시책과 관련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재단의 설립목적과 조직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 재단이 해당분야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조사분석이 가능한지, ② 해당 연구과제 수행으로 여성가족 의제 발굴 및 현장 맞춤형 정책지원이란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한 예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의 경우 ① 여성가족재단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② 해당 연구가 이전 연구와 다른 차별성 또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연구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듬)

8. 디지털 스튜디오 사업에 관한 사전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체계적인 예산 집행 및 효과성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음.
 - 디지털 스튜디오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가 서울시 및 국공립 대학교수의 강사료 기준에 비해 과하며, 교육 총 참여인원 대비 소요비용도 지나치게 과다함. 교육과정운영비에서 식당·편의점에서 식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내역, 컴퓨터 및 복사기 임대료를 불필요하게 지출한 내역을 소명하고,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조치를 하기 바람. 여성능력개발원 수탁기관이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영방식의 개선없이 예산지출하는 중간역할만 하고 있으므로 개선 조치 바람.
9.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직 경력이 있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운영평가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책임연구자인 업체와 여성능력개발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보이므로 시정 조치 바람.
10. 재단의 여성직원 근속년수가 타 출연기관 근속년수에 비하여 짧고 퇴사하는 직원이 많은데, 직장 내 갑질이나 낮은 보수, 관료적인 조직문화 등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분석하고 확산하는 것은 여성가족재단의 핵심 연구업무인데 위촉연구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대신 정리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개선을 바람.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9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애향원)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고유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타 지역 센터들과 변별력을 가지도록 할 것.
2. 상담시간이 10시~17시로 직장을 가진 직장맘·대디가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 중심의 상담시간으로 조정 필요.
3. 힐링영상은 다른 채널에서도 고품질의 영상이 많으므로 지양하기 바라며 직장맘지원센터에 맞는 소비자 중심의 영상제작으로 유튜브채널 운영관련 구독자 수와 조회수 확대 필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4. 법인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센터장이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은 일반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법인의 정체성에 맞는 센터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 등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조치 필요.
5.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고유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타 지역 센터들과 변별력을 가지도록 할 것.
6. 직장맘의 편의를 고려하여 현재 10시부터 5시까지인 상담시간을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 필요.
7. 경력단절 예방 및 노동관련 상담 등의 주요사업이 새로일하기센터, 노동권익센터 등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많으므로 서남권직장맘센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모색하기를 바람.
8. 센터 주요 이용시간(10시~17시)이 사실상 직장맘들이 휴가를 내서 와야 하는 시간임. 주 이용자들인 직장맘, 직장대디가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적절한 시간대로 변경 바람.

<강북 늘푸른교육센터>

9. 강북 늘푸른교육센터의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함. 시설환경과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현장점검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종합평가 결과 낮은 점수에 대한 개선과 직원들의 복지, 처우개선 등 열악한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성과지표 목표는 계속 낮게 설정하고, 실적은 계속 높게 나옴. 실제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적절한 목표 설정할 것.

<강북, 관악 늘푸른교육센터 공통>

11. 2개 기관에 대해 22~24년까지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해마다 비슷하게 지적되었는데,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조치 할 것.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12. 한 명의 청소년이 한 번 방문하여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각각 별개의 실적으로 중복집계 하거나, 제한된 인력에 비해 과도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과도한 실적 중심의 보고를 지양하고, 실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 있는 자료 제출할 것.
13.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사업비 비중이 약 20% 수준을 감안할 때 실제로 일시보호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지원되었을지 의문스러움. 사업비의 비중 올려야 함.
14. 기관에 대해 22~24년까지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해마다 비슷하게 지적되었고, 지난 회기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는 동의안을 받지 못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가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관악 늘푸른교육센터에서 기능을 이어받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십대여성건강센터>

15. 마약 관련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10대 여성들의 마약 사범율이 더 높은 추세를 보임. 특히 센터가 위치한 마포의 경우 홍대, 신촌 등 마약 유통이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성매매 등과 관련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 센터 운영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교육과 안내 뿐 아니라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16. 거의 비슷한 기간 비슷한 내용으로 2건의 프로그램을 한 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진행하였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서울시의 지도와 검토가 필요함.
17. 대부분 수의계약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외부 기관에서 대부분 시행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위탁을 준 사업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애향원 - 증인 이철>

18.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애향원은 사회복지시설 농촌 이전 계획에 따라, 재단법인 애향숙의 재산(김천시 토지)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애향원의 재산(중랑구 면목동 토지)을 감정평가 없이 교환하여 '84년 김천시로 이전하였음.
이전 당시 이미 토지위에 재단법인 애향숙의 미등기건축물(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여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의 토지이용 및 활용이 제약받아 재산권에 침해(법정지상권)가 발생하였음.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애향원 소유 토지 내, 건축물 중 '20.10월 재단법인 애향숙 소유로 일괄 등기된 12개 건물의 소유권은 재단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소유이며, 법인에서는 지금이라도 사회복지법인의 건축물로 등기를 변경하여야 함.
19. 애향원 시설의 누수 및 곰팡이 등 시설환경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는 애향원에 전입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법인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함.
또한, 사회복지법인 소유 토지 내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의 의거하여 철저한 조사를 이행하기 바람.

2 건의사항

◆ 여성가족실 - 15건

1.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이 수반되어야 하나,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에는 성평등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주로 가임기 여성 지원과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성평등 관점 수반한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2.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주장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돌봄 노동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가 더 이상 서울시 공식입장이 되어서는 안 됨.
3.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했음에도 25년도부터 민간서비스로 변경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시장형으로 전환할 경우 가사관리사의 고용 안정성 및 근로조건 약화, 서비스 수준 저하, 대형 업체의 시장 잠식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됨.
4.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시민건강국의 방문간호사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서 협업 체계 검토 바람.
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
6.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건에 대한 피해방지에 힘쓰기 바람.
7.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서로 다른 근로시간으로 인해 급여체계에 있어 편차(주당 41만원~71만원으로 최대 두배 정도 차이 발생)가 있으므로 임금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족으로 인한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관리기준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8. 가사관리사의 숙련도 및 서비스 태도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며 이용자 측에서도 언어 소통 등에 대한 불만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하도록 노력할 것.
9. 아동 시설 배치 시, 보호대상 아동의 건강·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선 바람.
10. 결혼식 지원사업 관련 서울시와 일반 기업의 협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려하길 바람.

11. 의자 대여나 서울시 공공기관 장소 협조 등 이용자가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12.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관련, 서울형데이케어센터처럼 인근 마을까지 운행하며 출퇴근시켜주는 차량 운행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건의함. 강서, 구로, 영등포, 양천은 시범 사업이 없음.
13.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하자가 많음. 업체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함.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했으면 함. 예방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4.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일반형, 융합형이 자치구 지역에서 상호 간 갈등이 발생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시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15.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근본적으로 장애여성의 교육 수요가 많지 않고 취업률도 현저히 낮다는 한계가 있는데, 위치적으로도 한 지역에 치우쳐 있어 서울시 전역에 있는 장애여성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여건이라 장애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이 필요함.

◆ 여성가족재단 - 8건

1. 양성평등 실천이 재단의 주요 목표이고 중요함에도 '24년 양성평등 관련 연구는 1건에 불과하고 '25년도에도 연구계획이 2건만 예정되어 있음. 양성평등 관점이 후퇴되지 않도록 관련 연구에 매진해 주기 바람.
2.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의 딥페이크 특화 상담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방이 피해 상담 지원과 관련하여 명확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재 요식적인 배너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수정할 것을 건의함.
3.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딥페이크 상담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방에서 피해자 등이 상담할 경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4.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대표번호를 이용자가 외우기 쉬운 번호 등 목적에 특화된 번호로 개선을 검토해 볼 것.
5.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관련 서울시교육청과의 스쿨핫라인 프로세스를 통해 연계 시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통한 연계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6. 서울가족플라자 2025년도 건물하자 보수계획을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하자 보수

계획이 아닌 동일 하자 사유 발생 시 보수계획, 장마철 누수에 대처하기 위한 건물 구조 변경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 바람.

7. 출연기관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안전사고 발생건수 0건'으로 과소 설정하고 있음. 안전사고 예방차원의 목표설정 강화와 별도로 안전사고 규정 및 조치 규정을 내부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바람.
- 8.. 연구과제 자료에서 오타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노력할 것.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6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십대여성건강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 개소 이후 12년이 지났고, 2018년 여성가족재단에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내놓았지만, 상담서비스 위주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음. 법적 분쟁 해결 등 전문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밀착 지원 확대 등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
2.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의 역할 매우 중요한데, 2024년에는 회의를 한 번만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이행률 100%로 보고함. 역할과 활동 강화 필요.
3. 2024년 '사업장 인식개선 사업'을 중소영세사업장 29곳에 대해 진행했는데, 모두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음. 어린이집 외에 다양한 사업장을 발굴하여 사업 진행할 것.
4. 온라인 상담신청하는 게시판의 제목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
5. 직장맘·대디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직장부모지원센터로 센터명을 바꾸어 시민들이 기관 취지의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음.
6. 가족센터와의 차별성이 있어야 함.
7. 법률지원팀장은 법률인(노무사)이 되어야 하며 운영위 자문위원도 특정 구성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8. 전체 운영비 5억9천만원인데 그 중 인건비 4억6천만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고, 단순 전화상담건으로 보여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십대여성건강센터>

9. 수도권 십대 여성 마약사범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 3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필로폰 등 향정사범도 증가하고 있음. 마약은 성적 착취나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십대여성청소년의 마약 노출 문제가 심각하므로 '25년도 사업 운영 시 예방 및 대처 관련 교육프로그램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10.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이 많아 자립 초기 라포 형성과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양질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과 인원 확충 필요.
11. 영플러스서울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공간도 잘 조성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용률 저조함.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 필요.
12.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지원의 초점이 주로 자립 직전이나 자립 이후에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 실질적 자립은 성장과정에서부터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실태에 대한 점검과 파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13. 시설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음.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14. 내용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재검토가 필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업체선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가 필요.
15. 서울시의 위탁사업을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
16. 전담기관에서는 1인 46명을 사례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사례를 보면 1인 20명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음. 46명을 사례관리 하면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사례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인력보충의 필요성이 없을지 살펴볼 필요 있음.

또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고난도 전담팀의 전담인력은 1:1 전담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기 바람.

-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으면 전문성이 결여되므로 직원처우가 열악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바람.
- 지도점검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람.

③ 기타 자료요구 등

◆ 여성가족실 - 13건

1. 우먼업프로젝트 사업 개요 및 현황(진행사업, 예산규모 포함)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개요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사항
3. 안심벨(헬프미) 사용후기, 회수율
4.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대상 딥페이크 사건을 안심지원센터에 연계한 내역
5. 성폭력 피해자 시설별 실제 지원인원(누계구분)
6. 성매매 피해자 시설별 실제 지원인원(누계구분)
7. 해바라기센터 실제 지원인원(누계구분)
8. 서울시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
9. 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은평,중랑센터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익사업과 자치구 공모 사업 수익의 운영비, 인건비 등 관련 경비 상세내역
10.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초, 송파, 은평 센터 외 15개센터 2023년 결산보고서 및 24년 예산서(보조금 외 포함)
11. 디지털 특화 프로그램 공모관련
 - 공모신청기관 제안신청서, 선정 기준 및 관련지침
12. 디지털 특화 프로그램 실적
 - 참여인원, 강사별 강의 건수, 총액, 만족도 조사 결과
13. 사회복지법인 기독교감리회 애향원 소유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이력 포함), 등기 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필지별)

◆ 여성가족재단 - 14건

1. 2025년 여성가족재단 연구과제 목록(안)
2.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컨설팅 사업 세부내용
3. 한부모가족시설 관련 연구결과 요약본
4.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 발전 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5. 스쿨핫라인에서 SPO의 역할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한 검증 절차, 방법

6. 서울시교육청과 구축한 핫라인 프로세스
7. 여성가족재단 2024년 수의계약 중 연구 관련 계약자료(과업지시서, 수의계약 사유서, 대표명 등)
8. 우먼업몰 관련
 - 구직지원금으로 우먼업몰 이용률, 운영자 관련 서류, 협약서
9. 양성평등가족기금 관련
 - 양성평등가족기금 예치금 관련 금리 명시 되어 있는 은행과의 기금 협약서
10. 방과후 어린이집 관련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방과후 어린이집 학년별(연령별) 이용 현황
1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 개인별 급여현황, 의식주 관련 평균비용
12. 공공예식장 관련
 - 서울시 공공예식장 협력업체 관련서류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협약서)
13. 최근 3년 연구 관련 수의계약 내역
14. 여성가족재단 3년간 퇴사자 현황, 사유 등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21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활동자료
2. 사업장인식개선사업 활동자료
3. 최근 5년간 상담사례 분류별
4. 최근 5년간 노무상담, 심리상담 내역
5. 최근 5년간 권리구제 내역
6. 최근 5년간 찾아가는 교육, 법률교육 내역

7. 법률지원팀장 채용공고 및 자격조건
8. 운영위원, 자문위원 학력 및 경력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9. 최근 5년간 상담건수, 상담사례
10. 최근 5년간 노무사가 상담한 사례 및 노무사의 역할
11. 최근 5년간 법적 분쟁 시 법적·행정적 지원 사례(대표적 사례 제출)
12. 최근 5년간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및 관련 교육 건수, 주요 내용
13.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인건비 현황
 - 2024년 인건비 예산 산출 내역
 - 2024년 센터장, 저년차 노무사 인건비 내역
14. 2024년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권리구제 사례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15. 2024년 사업비 세부내역
 - 인건비 명세표, 직원 이력서
 - 1인가구 사례관리리스트 및 사례2건(개인정보 삭제)
 - 거리아웃리치 실적 제출(세부사업별)
 - 찾아가는 실무자 간담회 기관방문기록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16.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역할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 개입사례
17.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인력 처우, 경력, 역할, 서비스 제공 실적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18.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현황

19.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의 대학 진학률
20. 2024년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
21. 2024년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방별 생활인원 현황

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괄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39	61	37	41
복지실	68	30	20	18
복지재단	23	8	6	9
복지 관련 시설 (증인 요구기관 포함)	48	23	11	14

2 세 부 내 역

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복지실 - 30건

1.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성과발표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고, 유리한 점만 부각함. 막대한 예산 투입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의한 성과평가를 통해 의미 있는 정책실험 되도록 할 것.
 - 시범사업 1차연도와 2차연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과 지원기간이 다른데도 두 집단을 동일선상에 놓고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 등 성과 강조함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증가에 대한 설명 누락
 - 비교집단과의 비교에서 주요지표에 대한 비교 생략 등
2. ‘고독’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고, 이웃과 지역 등 민간의 역할 중요한데 민간 개입을 정책적으로 실행하기 쉽지 않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해 주기 바람.
3.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계획서 본문과 붙임 문서의 수당 지급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과 민원 발생하고 있음.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조례 또는 지침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4. 경로당 중식 주5일제 시행 관련하여, 인원수 고려한 부식비 차등 지원을 지적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부식비 증액이 반영 안 됨. 내년 상반기라도 조정되기 바람.
5.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 대부분이 지회 인건비임. ‘프로그램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최소 주 2회 건강, 미술 등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검토 바람.
6. 디딤돌소득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자격요건이 유지되는 바 서울시의 여러 발표 중 디딤돌소득 시범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효과와 명확히 구분하여 디딤돌소득에 의한 지출 증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분석해야 할 것임.

7.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평가모델에 대해 검증된 외부 기관의 심의·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와 인증절차를 강화하여 연구 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함.
8. 좋은돌봄인증기관의 예산지원이 기존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점과 관련하여 수혜대상 확대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연구를 수행할 것.
9. 선임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7명을 대상으로 12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전체 인증기관의 극소수에 해당하므로 처우개선방안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0. 복지관 직원 외부강의로 1년에 1,382여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함. 잦은 외부 활동으로 복지관 업무 집중에 차질이 있지 않도록 관리 등 조치할 것.
11. 복지관 직원이 외부 활동 시 강사료 외 추가로 출장비, 교통비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2.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위치가 경사져 있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적합하지 않음. 쉼터 4개의 수탁법인이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면 입소 인원을 유동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고, 종사자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니 검토 바람.
13. 자활사업의 생활시설 입소자가 등록장애인,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임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통합 지원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함.
14. 자활사업에 국비보조금이 투입됨에 따라 사업 유지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여짐. 지금 시대에 맞는 다른 사업을 발굴하여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 수립이 필요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 시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도록 구체적인 지도 감독 등 조치할 것.
15.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재직시 갑질 부당채용 등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관장 사직서 제출로 징계위원회가 취소되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다른 복지관으로 채용되었음. 시설장 채용 시 이전 직장에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채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16. 서울시와 시설 간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도·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
17. 24개 법인 장애인복지관의 3개년(22년~24년) 지도·점검 결과에서 계속하여 지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것.

18.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마다 매칭 대상자 수가 다르고 자치구별 고독사 위험군 편차도 심하며 야쿠르트 배송을 활용한 위험군 발굴 사업도 하는 등 중복 사업이 많으므로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9. 2014년에 제정된 경로단 운영 규칙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것.
20. 어르신 일자리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일자리는 더 많은데,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함. 내년 일자리가 9만여 개로 늘어나면, 신청자가 13만명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21.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사직서 내고 1개월간 남은 휴가 쓰고 안나왔다면 아직 복지관 소속인데 이 기간 중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문제임. 사직서 내고 휴가 쓰고 안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함.
22. 특화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적은 상황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3중복지관 재구조화 TF를 운영한 결과가 미흡하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심의위원 구성 관련, 사회복지사협회는 공익단체가 아닌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장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심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소수의 심의위원이 중복참여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신뢰성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강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심사 시 참석한 외부위원 2명이 같은 법인 소속인 것은 문제가 있음. 해당 위원 회피 시에는 4명이 심사한 것과 마찬가지로인데, 유효한 심의 위원들의 수가 적어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24. 사단법인이 사회복지 관련 목적사업 변경으로 정관변경 신청을 했는데 주무부서인 복지실의 협의과정을 미이행하였으며, 총회 인원의 인감증명서를 미 첨부하는 등 정관변경 절차가 부실하였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우리나라 사회보장시스템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봄. 전국화 기회가 없어지거나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지 못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임. 2021년 4월 최초 사업설계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이 40억원이었으나 2022년 10월 중위소득 85% 이하 1,600가구 대상으로

예산이 49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가족돌봄청년대상 확대 등) 4번이나 치밀한 검증없이 설계가 변경됨.

또한 사업이 5년단위로 설계되어 해마다 예산심의를 의결해야 하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26. 2023년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전액 불용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고, LH를 통한 주택 공급 외에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함.
27.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인원 감소 문제가 있음. 종사자 탄력적 운영 등 시설의 효과적 운영이 필요함. 또한 쉼터는 비공개 시설이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모를 수 있으므로 대안 마련 필요함.
서대문피해장애인쉼터 이전 대상지가 엘리베이터 등이 없어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져고 옆 건물에서 노출되는 등 쉼터로 적합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고 재검토 필요.
28.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자치구별 경쟁률 편차가 큼. 선발인원을 자치구 배분이 아닌 시 전체로 해야 함.
29.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내년 수행 사업자 선정 시 많은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30.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짐. 뜻이 좋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센터 및 쉼터의 전체적인 통합이 필요함. 또한 10만이 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등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서울시 복지재단 - 8건

1. 공동연구원을 위촉할 때 객관적 절차가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위촉 계획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함.
2. 연구사업 수행내규 중 연구윤리 준수 규정에서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해 원칙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윤리 확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
3. 외부위원을 통해 '20~'24년까지 연구과제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감수를 진행해야 할 것.

4. 복지재단의 연구수행 절차를 강화하여 연구보고서의 기본적인 데이터 수치의 오류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서울시에서 100%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인용할 시 이로 인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신뢰성 있는 결과물을 제공하도록 할 것.
5. 좋은돌봄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사업과 심사지표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절차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허들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서울시 내 보증금 650만원으로 이사 가능한 곳이 없을 것임.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내고 살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다시 고려하고 우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공동모금회와 논의하여 사업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6. 재단 발간 연구보고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공적 자료로 연구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오탈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발견된 오탈자를 수정토록 하여 공신력 있는 연구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7. 복지재단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예금이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 부채가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재정 문제가 있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8.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예산 5억원이 실질적 효과가 있는 생계비 등의 지원이 아닌 자원 연계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예산 대비 사업 효과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복지 관련 시설 -23건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시립 양평 쉼터, 서울 광역자활센터,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1. 사업실적 집계시 실제 근무 인원에 따른 사업성과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2. 피해장애인쉼터 홍보방안 등 마련 필요하며, 특히 서대문피해장애인 쉼터 이전 대상지가 장애인쉼터로는 적합하지 않음. 또한 전체 피해장애인쉼터 4개소 법인을 하나로 모아서 종사자의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며 피해장애인들 퇴소 이후 모니터링 조치도 필요함.

<커리어플러스센터>

3.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사업보다 근로지원인 및 직무지도원 양성사업 중심으로 운영 방향이 변질됨. 센터 본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인 훈련 및 취업지원 중심으로 운영방향을 재정비할 것.
4. 발달장애인이 자립적으로 단독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바람.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5. 근로장애인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내역과 노사협의회 실시내역 정리하여 공유할 것.
6. 오금점에 투입된 재정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이나 운영수익이 비효율적임.
오금점 현금 출납부상 비용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은 상황들이 반복되는 건 운영상 문제가 있기에 사업운영의 혁신이 필요함.

<행복플러스 보호작업장>

7. 민간위탁기관의 위탁기관 변경시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가 8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년 이후 대부분 퇴사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 및 인력관리에 신경 써 주기 바람.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8. 운영법인인 (사)동행연우회의 법인전입금 너무 적음.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시립 양평 센터>

9. 시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늘어나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0. 시설 이용자에 대한 연인원으로 자료 제출되어 1일 또는 한달간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알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11. 미해결 상태인 협동조합의 수익금 분배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서울 광역자활센터>

12.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비 사업에 대한 통합이 필요해 보임.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점검에 따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할 것.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13. 데이케어센터와 이동목욕센터 이중수급 4천만원이 발생하였음. 이에따라 법인 운영의 과실로 인한 법인의 영업정지 50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시의 요양센터 이월금으로 법인의 영업정지 과태료 1억원을 납부한 것은 위반임. 또한 채용공고 없이 채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기 바람.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14. 보호작업장에서 한 가지 임가공 작업만 진행 중인데, 참여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자립기반에 도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 검토할 것.
15. 알코올 및 정신질환 재활사업의 집행률 낮고,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회복지원 프로그램이 연말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의심됨. 재활 및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인별로 특성에 맞춰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
16. 일자리·신용회복 사업의 진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 바람.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17. 법인이 해당시설에 수행한 내부감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별다른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으나, 서울시에서의 지도·감독 결과로는 결산서상 이월금과 통장 잔액 불일치, 외부 회계감사 미실시 등 서울시와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상이한바 내부 감사를 공정하게 하여 투명하고 정당한 운영을 위해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18. 조직의 관리 운영 측면에서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직원 채용시 면접관 관리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구시대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현행 법규 등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조치 필요.
19.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사업 중 ‘청년더부러지원사업’의 사업명에서 ‘더부러’라는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명 변경 검토 필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 증인 기민희, 문동팔, 최병학>

20. 한국재활재단에서 법인 후원금을 복지관의 지정된 계좌에만 보내야 했으나 일반 계좌로 나누어 보내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 발생함. 재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
21. 복지관 갑질 등 비리제보 이후 재위탁 심사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재위탁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함.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 증인 심재은>

22. 2023년 결산에 이월금 16억원으로 매년 6억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도 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하는 후원금 역시 사용용도를 위반하고 있음. 그렇게 남은 후원금의 잔액이 법인통장에 16억원 쌓여 있음.
법인의 목적 사업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마포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전화상담시설 운영은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법인은 17억여원의 이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법인전입금을 단 8,520,000원을 사랑의 전화복지재단 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급함. 또한, 전문상담사 상근근로자가 1명으로 민감한 상담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음.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 50%를 초과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급여지급 등 간접비로 '22년도 64%, '23년도 81%를 초과하여 사용함. 또한 오피스텔 기본재산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수익은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함.

23. 법인 허가 취소 관련 규정 점검이 필요함.

2 건의사항

◆ 복지실 -20건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발표한 '공공돌봄 강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실효성이 우려됨.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 역할 증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인력 구성(정원 24명 가운데 5명만 신규채용, 나머지 19명은 기존 복지재단 인력 활용)으로 충분한 서비스 제공 가능할지 의문임.
 - 안심돌봄 120 전문적 상담과 연계 가능할지
 - 좋은돌봄 인증기관 7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해도 서울시 전체 방문요양기관의 1%에 불과한데 좋은돌봄 인증기관 통한 고난도 및 취약시간대 돌봄 공백 해소 가능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2.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쉼터, 직업재활시설 등 복지실 소관 기관들의 이직률 높고, 3년 미만 근무자 비율도 매우 높음.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필요함.
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이 여전히 열악함.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위해 더 노력해 주기 바라며,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4. 복지실 소관 각종위원회 개최 및 예산집행 실적 저조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5.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집행률 저조하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부족으로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6.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 가구주 비율이 과소포집 되었고 39세 이하 연령층은 과대표집 되어 데이터의 균형성이 결여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책효과를 전체적·균형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7.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외부 강의 상한선 등 규정 마련할 것.
9. 3종 복지관 임직원 대상 공통 외부 활동 기준 마련이 필요함.

10.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
11. 자활사업 지원 대상자가 중복지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필요함.
12. 자활사업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보조금 정산 시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지도 감독을 할 것.
13.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경로당 대상 제조교실을 운영하였는데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았음. 이와 관련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것.
14. 경로부장이 하는 일은 각 경로당 다니면서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잘 안내하여 격무 업무에 직원이 더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자치구별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남. 강북구만 봐도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예산 지원액이 매우 적어 보이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16. 법인전입금 용도 사용에 대한 지침이 없음. 프로그램비, 기능보강비 등 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람.
17.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이 적음.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도 새로 구성하는 등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8. 복지관에 시비로 85%가 지원 되고 있는데 간판에서는 서울시를 나타낼 수 있는 표기가 미흡함. 구립이나 운영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시비 지원 복지관인지 알 수 없음.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간판을 다시 디자인할 것을 제안함.
19. 3중복지관 시간외수당을 주기 위한 근무기록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음. 부당수령을 막기 위해 전자시스템 도입을 건의함.
20. 예비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람. 3중복지관의 현실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기 바람.

◆ 서울시 복지재단 - 6건

1. 최근 직접지원 사업이 증가하면서 재단의 고유사업 축소와 직원들 업무과중이 우려됨. 직접사업을 하더라도 재단의 고유기능인 연구사업과 병행하도록 하고, 직원의 업무 과중 여부도 점검 바람.

2. 시설 평가 시 각 시설의 목표와 사업 특성에 따른 지표를 마련해서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에는 피드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취업, 매출, 근로장애인의 소득 및 근로기간 등이 중요한데 평가항목에 잘 드러나지 않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 및 목표에 맞는 지표를 마련해서 평가할 것.
3. 표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확립과 보고서의 신뢰성을 위해 표절검사 수행을 고려하기 바람.
4. 대상자가 서울시 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증금을 내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장기 환수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서울형좋은돌봄인증 관련 현장 심사위원 93명 중 대부분이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 시설 종사자로 구성되어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6. 선진적이고 현재 패러다임에 맞는 미션과 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새롭게 대표이사 취임 후 경영방침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 복지 관련 시설 - 11건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시립 양평 쉼터, 서울 광역자활센터,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서울시 피해장애인쉼터(서대문)>

1. 사업실적 집계시 실제 사업성과를 측정 가능하도록 실인원 기반에 맞는 실적을 작성할 것.

<커리어플러스센터>

2. 커리어플러스센터는 센터명이 영어로 되어 있으며 또한 센터명으로 발달장애인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센터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으로 한글 표현으로 검토할 것.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3. 장애인이 훈련생 과정을 거쳐 근로장애인으로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훈련장애인 제도 활용 검토 바람.
4.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장애인’이라는 명칭 대신 ‘근로장애인’이라는 명칭 사용할 것을 제안함.
5. 법인에 지급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
6. 시설에서 고용된 장애근로인으로 인해 발생된 고용장려금을 시설에서 더 사용할 있도록 법인과 협의해 주기 바람.

<시립 양평 쉼터>

7. 시설 이용자가 줄고 있는 원인과 비어있는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
8. 시설 이용자에 대한 1일 또는 한달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필요.

<서울 광역자활센터>

9.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비 사업에 대한 통합과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점검, 사업모델 제시.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10. 2019년 10월 말 정신과 축탁의 진료 종료로 외부진료만 이루어지고 있음. 정신 질환 및 알코올 사용장애 입소자 비율이 많고 전문적 회복 기능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축탁의 채용이 필요함.

<서울시 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11. 민간위탁기관 종합성과평가에서 성희롱, 성폭행 등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감점사례가 나왔으며 '21년 84점이었으나, '24년 77점을 받은 바 각 기관에서 평가 결과 지적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

③ 기타 자료요구

◆ 복지실 - 18건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역대 원장 임기, 주요 이력
2. 청각장애인 쉽터 현황(자치구별)
3. 시각장애인 쉽터 현황(자치구별)
4.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자치구별 집행현황
5. 경로당 중식 주5일제 시행 이후 중식도우미 추가배치 현황
6. 작년 한 해동안 서울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한 야간 돌봄, 고난도돌봄 현황 자료
7. 한국재활재단 장애인 활동보조사 3개년 월별 교육수입 현황
8. 굿월스토어 마천미래형 직업재활시설 3개년 월별 고용장려금 수입 현황
9.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오금점 23년, 24년 월별 매출, 3개년 관리비 현황, 한마음 캠프사업 계획서
10. 굿월스토어 마천 미래형직업재활시설 오금점 3개년 법인 전입금포
11. 노인지회 경로부장 24년 계획서상 45명 자료
12. 경로당 개수 및 인원
13.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관련
 - 별도 세무보고 자료, 2023년도 세입세출 중 상세 세출 현황, 사업자등록증
14. 서대문장애인복지관 관장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치 급여 받았는지 여부
15.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계약) 심사위원 후보등록신청자 명단 2년치(23년, 24년)
16. 법인전입금 기준
17.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현황
18. 번동, 북서울 장애인작업장 약정 및 법인 전입금 내역

◆ 서울시 복지재단 - 9건

1. 복지재단 위탁사업 목록 및 최근 5년간 신규 서울시 위탁사업 목록
2. 최근 5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3.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주요 기능·역할 및 인력
4.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계획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결과 보고서 기관 피드백 자료
6. 좋은돌봄인증기관이 25개 기관이 인증된다는 가정하에 선임요양보호사 직원의 처우개선이 7명으로 12개월간 120만원에 대한 현황 자료
7. 3개년 (22,23,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컨설팅 사업 현황 및 연도별 예산
8. 희망두배청년 통장 성과
9. 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예산이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함.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별도로 자료제출 바람

◆ 복지 관련 시설 -14건

(커리어플러스센터,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시립 양평 쉼터,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 광역자활센터,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커리어플러스센터>

1. 사업 수입 내역
2. 2024년 집행 내역 (제출자료 정정)

<시립 마천동 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월스토어)>

3. 만나코퍼레이션 업체의 화물운송자격 관련 증명서

<시립 강동 실버케어센터>

4.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운영법인 동행연우회 산하 시설 법인전입금 내역

<시립 양평 쉼터>

5. 이용자 현황(연령, 기간, 이용 구분 등)

<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6. 이용자 현황(연령, 기간, 이용 구분 등)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7.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이전 계획

8. 축탁의 계약조건

<서울 광역자활센터>

9. 업무추진비로 화환 보내는 근거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10. 알코올해독센터 실적

11. 알코올 및 정신재활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진행기록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12. 물품후원관련 인수증 포함 증빙서류

13. 차량이용관련 증빙서류

14. 동물후원 지정후원금 증빙 서류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괄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04	33	34	37
시민건강국	60	12	22	26
보건환경연구원	19	9	2	8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12	8	4	-
건강 관련 시설	13	4	6	3

2 세 부 내 역

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시민건강국 -12건

1. 손목닥터9988 사업 관련 실제 건강 개선 효과성 검증 없이 예산 등 사업 규모를 급속히 확대함. 불필요한 포인트 지급 줄이고, 건강 개선에 실질적 도움 되도록 포인트 지급 체계를 개편할 것.
2. 손목닥터9988 사업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상시모집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가입자 수 추계 및 예산운용의 불확실성을 초래함. 안정적 예산 운용을 위해 모집방식 재검토 필요함.
3.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는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기존 예산 수반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마련을 수립할 것.
4.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하여 자치구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하지만, 자치구는 인증받은 기관이 아니니, 국가에서 인증받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자살예방에 대한 실효성 방안의 하나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함
6.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못 받을 정도로 생계형 자영업자가 코로나 상황 때보다 더 어려움. 5백만원~1천만원 등의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저금리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7.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재정 상태는 당기순손실이 자본을 잠식한 열악한 상태로, 이러한 기관이 적격자 심의를 통과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개선이 필요함.
8. 정신생활시설 현장평가 관련 부실한 사례 발견 됨. 구로다운(행감책자 527쪽) 시설은 종합평가 의견에 인권항목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평가가 어렵다고 기재하였

으나, ‘이용자의 권리 및 인권 항목’을 10점 만점에 12점을 주는 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개선이 필요함.

9.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이 아닌 당사자에 위탁하다보니 자격 등 모든 것이 애매함. 사례관리가 되지 않는 기관이므로 초기면담부터 잘 해야하며 초기면담 기록지 양식 변경 등 이용자 관리 점검이 필요함. 올해 중 시설장을 모아서 지적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정 해야 함. 사례관리 전담요원이라도 두어야 함.
10. '25년 시립병원 손실보전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면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주체는 재난안전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김.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1. 최근 백일해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임신부의 백일해 접종이 중요해짐. 접종가격은 상이하며 임신출산 바우처로 접종 권고하나 가족 등도 모두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함. 전염성이 높으므로 특히 임신부 본인은 무료 접종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지원 필요함(용산구, 서대문구는 배우자 무료접종 시행 중)
12. 정신병원 행정입원 치료비에 대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예산 소진으로 인해 병원 미수금이 계속 발생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경기도 상황을 참고하여 국비가 소진 되어도 지자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 9건

1. 연구과제 중 시민들에게 유익한 결과물이 많은데도 관련 보도자료 배포가 거의 없으며,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적고, 카드뉴스의 품질도 낮아 홍보의 효과성이 미미해 보임. 전체 예산 중 홍보비 비중도 너무 적음. 홍보 강화가 필요함.
2. 내구연한 초과 검사장비가 다수 있는데, 예산 부족과 고가장비 우선 구매 정책으로 장비 교체가 지연되고 있음. 검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뢰도 높은 장비로 정확한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교체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3. 업무보고서에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및 운영 현황이 누락되어 파악이 어려우므로,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음 상임위 업무보고서에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포함하고,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4. 동물학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생사법경찰단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대응이 원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5. CPR 서포터즈 관련 활용도가 떨어지고 공공 앱 실패점검 등을 통해 미흡함이 확인되어 지속적 유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폐기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6. 언론보도에서 심리부검대상자 관련 기사를 확인하면 자살사망자가 자살 3개월 전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방문율은 2.3%에 그쳐 자살예방센터 전화상담 응답률 제고 등 개편이 필요함.
7. 자살예방센터 고가의 임차료 개선을 위해 이전추진 등을 통한 예산절감 필요함.
8. 유흥업소 마약 간이검사키트의 효용성 및 결과의 타당성 등 신뢰도를 고려해야 할 것.
9. 유흥시설 마약류 예방 관련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세부사업 편성 및 집행내역 시정이 필요.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8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임차한 공간 일부를 광역심리지원센터에 무상전대한 행위는 「지방재정법」 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됨. 이를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동일한 사례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통폐합으로 인해 구성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없는지 살피고, 연구원들의 학력 및 경력 대비 낮은 연봉체계 등 조직 운영상 문제 없는지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통폐합 목적 실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시행할 것.
3.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이용률 저조한데, 홍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가 원인으로 판단됨. 검진센터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동수단 확보,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의료원, 보라매 병원 공통>

4.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의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를 보면 퇴직급여충당금 차지 비중이 매우 높음. 서울의료원 부채비율은 계산이 의미 없는 자본잠식 상태이고, 보라매 병원은 이것 보다 좀더 좋긴한데 당기순손실(약 374%)으로 나와 있어 부채 비율이 매우 높음.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모두, 민간병원에 비해 수익이 낮은 반면, 인건비·관리 운영비가 높고, 경영효율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병원 평가 기준에서 재무적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므로, 의료원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며, 경남에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존폐논란에 휘말릴 수 있음. 서울의료원과 보라매 병원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시립병원 친인척 채용 현황과 관련하여 사후에 친인척 여부에 대하여 발견되면 채용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대책을 세울 것.

<어린이병원>

6. 레인보우 예술학교 학생 출결 통지서 등 공문 시행 시, 붙임 파일과 제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식별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소지가 있음.

<보라매병원>

7. 장례식장 수입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8.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수입금 횡령 사건 피해액 환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의 회계 감독관리에 대한 방침을 세워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조치 할 것.

◆ 건강 관련 기관 -4건

(한센병관리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한센병관리사업>

1. 외래진료 피부검진의 경우 의료수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 2억원의 자체수익금은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해 보임.
2. 한센과 관련 없는 분야의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해야 할 운영위원회에 전문적인 분들이 참여해야 할 것임.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3. 조직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 자구노력으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재구조화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4. 예산 중 인건비가 84%, 사업비가 4%를 차지함.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과다 및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추후 사업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길 바람.

② 건의사항

◆ 시민건강국 - 22건

1. 손목닥터9988 참여자에 대한 연령별 심층면접(FGI)을 통해 건강 개선 효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사업방향을 보완할 것을 제안함.
2. 유희 시유재산을 활용해 '아이존' 신규 확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반가운 일임. 그러나 현장의 높은 수요와 대기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6년 사업 시작 이후 약 20년 동안 단 8개소만 운영되고 신규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음. 현재 진행 중인 확충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 현재 운영 중인 아이존 8개소 중 2곳의 시설장이 공석인 상태임. 관리·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지도점검하고, 시설장을 조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람.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위탁사업비로 임차한 사무공간 일부를 '광역심리지원센터'에 무상전대한 행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
5. 2022년 5월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사업의 진행이 미진함. 조속히 추진 바람.
6. 2022년 5월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진행이 미진함. 조속히 추진 바람.
7. 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통합되었으나, 통합 이후 성과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분석과 진단을 통해 통폐합 목적 실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검토할 것.
8. 아이존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 치료센터를 인증하고, 해당 센터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9. 시민건강국에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10. 아동청소년 건강지원 시설에 대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발달장애 초등학생 대상자들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것.

11.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를 국가인증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2.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마약류 예방 관련 관(공공)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 함. 부모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람.
14. 마약류 대책 관련, 민생사법경찰국은 마약수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는 보건의료정책과(마약대응팀, 의약무팀)에서 담당하는 등 서울시 시민건강국 및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등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복잡성을 띠고 있음.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가정 방문에 방문간호사가 2인1조 원칙임에도 상당수 자치구가 1인 방문을 진행하고 있음. 혹시 모를 위험상황 대비와 안전 확보를 위해 2인1조 방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람.
16.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위·수탁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후 센터 설립 조례 발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역보고서에 조례 내용이 포함되는 등 순서가 틀린 것으로 보임. 타당성 조사 내용 중 센터 수요조사시 5점 척도가 아닌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정부 포털 사이트 인지도 및 센터에서 받고 싶은 정보, 선호하는 교육 방법 등 문항 구성이 평균 점수를 올리거나 중앙부처 인지도를 낮추고,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의도 있는 구성으로 보임.
센터의 기능이 필요한지 운영평가를 살펴본 후 내년 상반기에 운영종료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7. 시립병원 전반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장비가 많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서북병원, 동부병원 등은 검사장비 수가 적음. 해당 문제가 서울시의 협조 부족인지 병원의 의지 부족 문제인지 간에 개선이 필요하며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심의 전 보고바람.
18. 손목닥터 9988은 회원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지, 시민의 건강 등 변화가 목표인지 불분명함.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비용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람.

19. 백일해로 신생아 사망한 사건 등 24년도 백일해 환자가 3만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급성호흡기 질환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홍보 등을 통한 예방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람.
20. 서울불꽃축제 직후 이촌한강공원의 미세먼지가 $1,016\mu\text{g}/\text{m}^3$ 에 달해 대기질 오염이 심각하며, 강한 빛과 소음,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 우려도 큼. 따라서 축제 추진 협조부서인 시민건강국이 레이저 드론 등과 같이 환경친화적 축제 대안을 검토하고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주기를 바람.
21.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말라리아 퇴치 우선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서울도 이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포함되었음.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서울시 대책 수립 필요함.
22.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올해 예산 집행률 저조하니 내년은 신속 추진 바람.

◆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서울시 지하역사 라돈 농도 전수 조사계획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하고 정확한 라돈 검사를 수행할 것.
2.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시험성적서 관리 및 발급 체계 미흡, 폐기물 보관 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철저히 개선 조치를 이행해 주기를 바라며,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4건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

1. 레인보우 예술학교 관련 추진실적 기준이 연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인원도 함께 표시하여 주시기 바람.

<은평병원>

2. 마약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 참여도가 제일 중요함.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과 관이 같이 갈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에 인색함. 홍보를 통한 예방 교육이 중요. 홍보비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보라매병원>

3. 장례식장 수입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4. 비자의 보호입원 절차 미준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건강 관련 기관 -6건

(서울시 제대혈은행, 에이즈 예방 홍보, 에이즈 예방 교육,
한센병관리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서울시 제대혈은행>

1. 조례에 제대혈 공급비용 감면대상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규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추가되었으나, 실제 감면 및 면제 내역은 없는 상황임.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에이즈 예방 홍보, 에이즈 예방 교육 공통 >

2.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력 구성에 대해 개선 필요함.

<에이즈 예방 교육>

3. 한부모가정 대상 교육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에이즈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확충할 것.

<한센병관리사업>

5. 한센병 치료보다는 장비 등 일반 피부과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도점검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6.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인력 유지율을 높이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적 복지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3 기타 자료요구

◆ 시민건강국 - 26건

1. 손목닥터 9988 관련
 - 이용자 중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회원현황
(회원수 및 포인트 지급현황)
2. 시립은혜로운집 관련 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 반납내역, 종합성과평가 결과
3.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관련
 - 무상사용 근거 및 관련 방침, 인테리어 비용 관련 지출자료(예산사업명 포함)
4. 감염병연구센터 조직개편 관련
 - 2022년 대비 인력 및 조직 현황, 근속 여부, 직급 관련 자격 현황
 - 감염병연구센터 폐지 관련 업무 이관내역
5. 코로나19 대응 백서
6.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종합대책 또는 보완대책 수립 여부(방침서 및 계획서, 예산 반영 여부)
7. 시립병원(직영병원 제외) 전체 코로나19(2023.1월) 이후 금융기관 차입 현황
 - 이자율, 담보율, 서울시장 보증서, 대출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대출금 상환 내역 및 상환 계획
8. '22년 5월 공공의료 확충계획 관련 자료
 - 서울형 공공병원 추진실적, 예타 제출자료
 - 공공재활병원 추진실적
 - 사업별 방침서, 예산현황('22년 이후)
 - 강북구 어린이병원 설립 관련 추진실적
9. '22년 5월 공공의료 확충계획 예산 반영 자료
 - 항목별·사업별로 대차대조표 제출
10. 코로나19(2023.1월) 이후 시립병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또는 설비 투자 관련 자료 일체
11.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계약 내용
 - 보수 및 겸직을 통한 보수 포함

12. 시립병원별 전공의 사직 현황(퇴직금 지급내역 포함)
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아이존) 관련
 - 아이존 근무자 이력 및 자격, 세부예산 내역(프로그램별 구분)
14. 보건지소 자조모임, 건강소모임 운영 현황
 - 예산, 자조모임이나 건강소모임의 방향, 대상자 수와 활동사항 포함
15. 마약류 예방사업 유흥업소 키트 배부 관련자료
16. 식품진흥기금 사용한 마약류 관리 예방사업 세부내용
17. 마약류 키트 배부 관련 예산 사업 편성내역
18. 시립병원 재활 로봇 보유 현황(대수, 가격)
19. 시립병원과 위탁병원 장비 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 내역서
 - 교체 추정 소요금액 포함
20. 최근 3년간 시립병원별(전체) 친인척 채용 현황
21. 손목닥터 9988 관련
 - 등록회원수('24년 현재 기준, 위치, 앱 구분, 연령별, 성별 구분)
 - 신체활동(걷기) 관련 자료
(1일 2천보이하, 2~4천보, 4~6천보, 6~8천보, 8천보 이상으로 구분)
 - 향후 등록 회원수 목표와 소요예산
22. 최근 5년간('21~25년)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 보조금 교부 현황
 - 예산편성 시기별(본예산과 추경예산), 일반회계, 기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공공의료 손실보전금과 기타(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산출한 '25년도 공공의료손실보전금 산출자료
23.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근거
24. 야간에 난임 시술 등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내 안내사항 등)
25. 기억키움학교, 초록기억카페 운영예산, 이용현황 등
26. 정신병원 입원 관련 민원내용

◆ 보건환경연구원 - 8건

1. 특정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
 - 업체선정 과정 및 계약기간, 처리량, 처리단가 등
2. 내구연한 지난 장비 내역 등 현황 자료
3. 방사능, 식품 등 검사 관련 사업의 보건소 및 서울시 유관부서와 협력 추진현황
4. 동물위생시험소 관련 수의법의검사 시스템 현황 및 실시 자료
5. 동물위생시험소 운영활성화, 개선방안 계획에 대한 내역
6.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동안 조사했었던 내역
7. 학교 급식 관련 방사능 검사 현황 제출
8.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 유해물질 조사 관련
 - 실내공기질 부적합 14개소에 대한 조치사항 등

◆ 건강 관련 기관 -3건

(한센병관리사업)

<한센병관리사업>

1. 서울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관련
 - 서울시 보조금 외 2023년, 2024년 연도별 의료수입 및 수입 세부내역(진료수입, 검진수입 구분하여 공단에서 지급받은 급여액)
 - 위 2023년, 2024년 연도별 의료수입에 대한 집행내역(인건비, 운영비, 의료장비 구입 등 구분하여 집행액)
 - 2023년 서울시 보조금 예산 세부 결산서 및 2024 집행 내역(인건비, 사업비 등 집행내역을 세부 결산서 항목 기준으로 작성)
2. 한센의원 주요 장비 현황, 병원근무 직원이력 포함된 명단
3. 한센복지협회 만족도 조사 통해서 환자 필요물품 수요 파악하고 있는 부분 제출